

역기능적 신념이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이나 타인 혹은 세상에 대해 형성한 일반적인 원리나 신념들 중에서 부적응적인 신념을 뜻한다.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은 이전의 충격적인 외상경험, 직접적인 조건형성이나 관찰학습, 정보전이 및 부모의 양육방식 등과 생물학적이고 기질적인 행동적 소인이 상호작용한 결과 형성된다(김은정, 2000). 역기능적 신념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 변인(vulnerability variable) 혹은 소인(diathesis)으로서 상황의 다양성이나 가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신념이다(조용래, 2000). 이는 위협적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상황에 의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를 거쳐 일상적인 상황을 실제보다 더 위협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대인 불안이나 대인 회피행동 등 사회공포 증상들을 유발한다.

역기능적 신념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 혹은 세상 일반에 대하여 절대주의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김세은, 2005). Clark과 Wells(1995)이 제안한 인지모형에서는 역기능적 신념으로 사회적 수행에 대한 과도하게 높은 기준,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조건적 신념, 자기와 관련된 무조건적 신념을 제시한다. 조용래와 원호택(1999)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자기 개념,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공포 및 그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자 하는 과도한 집착, 그리고 일반적인 대인관계 및 타인에 대한 경직되고 부정적인 태도 등으로 역기능적 신념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극단적으로 융통성

이 없고, 원래의 형성배경과는 달리 그러한 신념이 실제로 상위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보다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신념이 위반될 경우 극단적이고 과도한 정서경험이 초래된다는 의미에서 역기능적이라고 한다(조용래, 1999).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역기능적 신념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검사로는 Jones(1968)의 비합리적 신념검사(Irrational Belief Test; IBT),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척도(Dysfunctional Attitude Scale; DAS),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현진원, 1992;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조용래와 원호택(1999)의 역기능적 신념 검사(Dysfunctional Beliefs Test; DBT)가 있다. 하지만 이들 척도 중 조용래와 원호택(1999)의 척도만이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신념의 내용과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검사이고 그 외의 척도들은 다른 정신 장애를 위해 제작된 척도이거나 사회공포증의 인지적인 측면 외의 다른 부분도 함께 평가하고 있어 변별타당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공포증의 역기능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한계점이 있다(조용래, 원호택, 1999).

조용래와 원호택(1999)이 개발한 역기능적 신념 검사(Dysfunctional Beliefs Test; DBT)는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라는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3개의 1차 요인이 있고, 그들

간의 상관에 근거한 1개의 2차 요인이 있는 2 단계 요인구조이다. 역기능적 신념 검사의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와 타당도는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입증되어 있다.

홍세희와 조용래(2006)는 역기능적 신념검사가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신념의 내용과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널리 사용되는 척도이지만 총 70문항으로 문항 수가 다소 많아 실시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편함을 들어 단축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의 하나인 Rasch 모형을 적용하여 36문항으로 구성된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단축판을 소개하였다.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가 제작된 후에 사회불안 및 발표불안에 관한 연구에서 단축판 척도가 널리 쓰이고 있다. 이를 보면,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발생기제에 대한 변인으로 역기능적 신념을 본 연구(양주경, 2007), 발표불안에 대한 비디오 피드백 효과를 본 연구(조용래, 2007),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을 본 연구(한영경, 2008),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 효과 연구(하은혜, 2009), 성격장애 진단검사 타당도 연구(노은정, 2008) 등이다. 단축판 척도가 연구목적 및 임상적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축판에 대한 타당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시 시간이 원판 척도에 비해 간편하여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신념을 평가하는데 유용성이 높은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 검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고 원판과 단축판 검사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해 봄으로써 연구

및 임상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성별 및 전공계열에 따른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 검사의 각 하위척도별 평균 차이를 검증하고, 단축판과 원판 척도의 각 하위척도별 내적 합치도를 확인한다. 또한 원판 및 단축판 척도와 대인불안, 대인회피, 대인공포 척도들과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척도와 관계분석을 한다.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요인구조가 조용래와 원호택(1999)이 제안한 3요인과 유사하게 얻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자료의 요인구조를 추출해보고, 원판 검사의 요인구조로 알려진 모형이 본 연구의 원판과 단축판 자료에도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 성인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2개교에서 사회과학 전공 수업 5개 반과 공과대학 전공 수업 5개 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체 학과 수업 중 문·이과를 구분하여 5개 반씩 무선 표집한 것이다. 단축판과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적합도 비교를 위하여 동일인을 대상으로 2주 간격을 두고 검사를 2회 실시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일반 대학생집단 남녀 2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주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였다.

1차 설문조사에서는 수거한 총 437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2부를 제외한 435부가

표 1. 1, 2차 설문예 모두 응답한 인원의 구성
(N=231)

	구분	인원(%)
성별	남	88명 (38.1%)
	여	142명 (61.5%)
	무응답	1명 (0.4%)
전공계열	사회과학대학	121명 (52.4%)
	공과대학	110명 (47.6%)
연령(만)	18-20	70명 (30.3%)
	21-25	139명 (60.2%)
	26-30	18명 (7.8%)
	31이상	2명 (0.9%)
	무응답	2명 (0.9%)

성실하게 응답해준 자료였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수거한 총 403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응답 11부를 제거한 392부가 성실하게 응답해준 자료였다. 이 중에서 총 231부가 1차 설문조사와 2차 설문조사에 모두 성실하게 응해준 것이었고, 결과 분석 시에는 이 231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결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반응해준 231명은 남자 88명과 여자 142명이었으며, 전공계열은 사회과학대학 121명, 공과대학 110명이었다. 표본의 평균연령은 22.24(SD=2.77)이었다.

측정도구

역기능적 신념검사(Dysfunctional Beliefs Test; DBT)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신념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용래와 원호택(1999)에 의해 개발된 총 70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DBT는 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라고 명명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피검자로 하여금 각 문항들이 본인의 평소 신념과 일치하는 정도 혹은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Likert형 척도[1점: 전혀 일치(동의)하지 않는다. 4점: 중간이다. 7점: 전적으로 일치(동의)한다.]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조용래와 원호택(1999)의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는 요인 1인 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의 경우,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41-.78,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 계수는 .95, 그리고 반분신뢰도 계수는 .96 ($p < .01$)이었고, 요인 2인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의 경우,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37-.66, 내적 일관성 계수는 .91, 그리고 반분신뢰도 계수는 .92 ($p < .01$)이었다. 요인 3인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의 경우는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43-.61, 내적 일관성 계수는 .90, 그리고 반분신뢰도 계수는 .91($p < .01$)이었다.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r)는 요인 1이 .81, 요인 2가 .83, 그리고 요인 3이 .83으로 나타났다. 표본 수 231명인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요인 1이 .96, 요인 2가 .94, 요인 3이 .91로 나타났다.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Short Version of the Dysfunctional Beliefs Test; SDBT)

조용래와 원호택(1999)이 개발한 70개 문항의 역기능적 신념검사를 홍세희와 조용래(2006)의 연구에서 36개 문항으로 줄인 단축형 검사이다. 이 검사는 피검자로 하여금 각 문항들이 본인의 평소 신념과 일치하는 정도 혹은 각 문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6점

Likert형 척도[1점: 전혀 일치(동의)하지 않는다. 6점: 전적으로 일치(동의)한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단축형 (Fear of Negative Evaluation-Brief; Brief FNE)

Watson과 Friend(1969)가 원래 30문항으로 제작한 것에서 Leary(1983a)가 전체 점수와 .50 이상의 상관이 있는 문항들만 뽑아서 만든 것으로 최정훈과 이정윤(1994)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이다. 12개 문항으로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12점에서 60점까지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나타낸다. FNE 단축형은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이 .90이었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p < .001)$ 로 보고되었다(Leary, 1983). 최정훈과 이정윤(1994)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이 .89로 나타났다. 표본 수 231명인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80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과 Clarke(1989)이 개발한 척도로서 모두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형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러하다.]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문항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기술하는 자기 진술문 형식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번안한 한국판 SIAS를 사용하였으며, 김향숙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는 .88~.94이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이었다. 표본 수 231명인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86로 나타났다.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

자기보고식 검사로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와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각각 14문항씩,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Watson과 Friend가 1969년에 제작한 원척도는 진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5점 척도로 작성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28~1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최정훈과 이정윤(199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SADS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2, 반분신뢰도는 .94,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표본 수 231명인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91로 나타났다.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1967)이 우울과 연관된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동기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우울집단을 감별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Beck 우울 척도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였으며 총 21개 문항으로 우울증상, 신체증상, 실패 및 자신에 대한 불만, 자기비난과 죄책감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문항은 자기 보고식이고 우울 증상의 정도를 기술하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응답자의 경험에 해당하는 정도를 기술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표본 수 231명인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89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2개교, 사회과학대학 전공 수업 5개 반과 공과대학 전공 수업 5개 반에서 동일인을 대상으로 2주간격을 두고 검사를 2회 실시하였다. 1차 설문지는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와 FNE 단축형, SIAS, SADS로 구성되었고, 2차 설문지는 원판 역기능적 신념 검사와 BDI로 구성되었다.

우선 원판과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각 하위척도별 내적 합치도를 구하였다.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와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단축형,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Beck 우울 척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 분석방법 중 단일 주축분해법과 Harris-Kaiser의 Othoblique 방식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원판 척도의 요인구조로 밝혀진 위계적 3요인 모형에 대해 단축판과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자료를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요인구조를 밝혔던 조용래(2004)의 연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도 해당 요인의 측정변인으로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끼리 세 묶음씩 무선적으로 나누어 구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AS 9.0, Windows SPSS 15.0 program과 Amos 7.0 program을 이용하였다.

결 과

성별, 전공계열에 따른 집단 특성

성별, 전공계열에 따른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남녀 대학생 및 전공계열에 따른 하위척도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 요인 모두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신뢰도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은 .96,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94,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는 .91로 나타났다.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89,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87,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81로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단축판 검사의 하위척도별 반분신뢰도 계수는 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은 .88,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83,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는 .80이었고,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범위는 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은 .86-.89,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은 .86-.87,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는 .78-.80이었다. 일반 대학생 남녀 25명을 대상으로 한 2

표 2. 성별, 전공계열에 따른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 하위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231)

변수	하위척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NCSS	남	88	2.21	0.81
	여	142	2.25	0.71
EDOА	남	88	3.66	0.79
	여	142	3.71	0.83
NBOS	남	88	2.60	0.60
	여	142	2.74	0.73
NCSS	사회과학대학	121	2.22	0.72
	공과대학	110	2.25	0.78
EDOА	사회과학대학	121	3.69	0.81
	공과대학	110	3.70	0.83
NBOS	사회과학대학	121	2.69	0.70
	공과대학	110	2.70	0.68

NCSS; negative concept of social self factor, EDOА; excessive demand approval factor, NBOS; negative belief of others and social relations factor.

표 3.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와 단축판 검사의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α (N=231)

	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
원판 척도	.96	.94	.91
단축판 척도	.89	.87	.81

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r)는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78($p < .01$),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81($p < .01$),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63($p < .01$)이었다.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타당도 검증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단축판 검사와 원판 검사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단축형, 사회

적 상호작용 불안척도,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와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단축판과 원판 척도의 각 하위척도 간에는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사회공포증 관련 척도인 단축형 FNE, SIAS, SADS와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전체 점수 및 하위 척도 점수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 중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요인인 SDBT 2는 내용상 가장 유사해 보이는 단축형 FNE와 상관계수가 가장 크게 나왔고 ‘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요인인 SDBT 1은 사회적

표 4. 역기능적 신념검사 원판과 단축판 간의 하위척도 간 상관행렬(N=231)

	SDBT1	SDBT2	SDBT3	DBT1	DBT2	DBT3
SDBT1	1	.28**	.61**	.81**	.29**	.57**
SDBT2		1	.58**	.27**	.77**	.50**
SDBT3			1	.47**	.52**	.75**
DBT1				1	.41**	.66**
DBT2					1	.65**
DBT3						1

** $p < 0.01$, * $p < 0.05$

SDBT1; 단축판_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SDBT2; 단축판_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SDBT3; 단축판_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 DBT1; 원판_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DBT2; 원판_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DBT3; 원판_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

표 5.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와 타당도 평가를 위해 사용된 검사들 간의 상관행렬(N=231)

척도	Brief FNE	SIAS	SADS	BDI
SDBT1 (NCSS)	.41**	.53**	.59**	.03
SDBT2 (EDOA)	.59**	.27**	.15*	-.05
SDBT3 (NBOS)	.50**	.43**	.41**	-.01
SDBT total	.63**	.51**	.46**	-.01

Brief FNE;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단축형, SIAS;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 SADS;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 BDI; Beck 우울 척도

** $p < 0.01$, * $p < 0.05$

표 6.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와 타당도 평가를 위해 사용된 검사들 간의 상관행렬(N=231)

척도	Brief FNE	SIAS	SADS	BDI
DBT1 (NCSS)	.30**	.49**	.50**	-.07
DBT2 (EDOA)	.31**	.32**	.25**	.04
DBT3 (NBOS)	.38**	.42**	.44**	.41
DBT total	.39**	.48**	.47**	.01

Brief FNE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단축형; SIAS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 SADS =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 BDI = Beck 우울 척도

** $p < 0.01$, * $p < 0.05$

상호작용 불안 척도 SIAS 및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 SADS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우울 척도 BDI와 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와 사회공포증 관련 척도 및 우울척도와도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축판 검사의 결과와 같이 원판 검사에서도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공통요인을 찾아내어 어떤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공통요인분석 방법 중 단일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분의 추정치는 다중상관계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로 지정하였으며, 요인간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각회전(Othoblique)을 통해 최종구조를 추출하였다. 사각회전 방식으로는 Harris-Kaiser 방법을 사용하였고, HKP는 .3으로 지정하였다. 조용래와 원호택(1999)의 연구에서 원판 검사가 3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혀져 있어, 이에 단축판 검사도 원판 검사와 같은 요인 구조를 이루는지 확인하였다. 3요인 구조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의 요인 별 문항 묶음이 한 문항을 제외하고 원판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문항 구성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원판 검사에서는 요인 3의 문항으로 분류되었던 34번 문항이 본 연구 결과에서는 요인 2로 분류되었다. 이들 3개 요인은 총 공통분산의 80.18%를 설명하였다. 3요인 외에도 스크리도표에서 “급격한 차이 및 평준화”(이순목, 2000)를 보이는 지점을 찾아보았더니, 요인 3

표 7.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척도의 구조계수 행렬

문항	요인1 (NCSS)	요인2 (EDOA)	요인3 (NBOS)
22	.79	.09	.35
3	.75	.04	.21
36	.72	.27	.36
7	.71	.09	.39
2	.70	.06	.26
18	.68	.29	.53
20	.67	.06	.53
31	.63	.29	.36
19	.62	.35	.50
15	.54	.42	.51
12	.46	.17	.34
16	.45	.17	.34
5	.10	.76	.35
17	.03	.71	.30
33	.24	.68	.41
30	.14	.65	.35
6	.10	.63	.28
8	.18	.61	.33
24	.12	.61	.27
4	.12	.58	.14
14	.24	.55	.36
1	.01	.52	.20
10	.12	.52	.31
29	.17	.47	.15
34	.30	.44	.41
32	.33	.27	.68
25	.29	.35	.66
13	.29	.25	.64
28	.44	.38	.50
27	.31	.38	.48
11	.10	.26	.45
21	.28	.32	.45
26	.19	.27	.44
23	.28	.36	.43
9	.20	.38	.42
35	.18	.41	.42
고유치	8.90	3.68	1.21
설명분산(%)	51.75%	21.40%	7.03%

NCSS = 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EDOA =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NBOS =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

표 8. 요인상관행렬(N=231)

요인	요인 1 (NCSS)	요인 2 (EDOA)	요인 3 (NBOS)
요인 1	1	.28	.61
요인 2	.28	1	.58
요인 3	.61	.58	1

부터 그래프가 급강하여 평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2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 2와 요인 3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경향을 보이고, 요인 1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문항 간 높은 상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3요인 구조 분석 결과 한 문항을 제외한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이 단축판 검사와 원판 검사가 같은 결과를 보여 단축판 검사도 3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에 대한 확인적 요

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자료가 이미 알려져 있는 요인구조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조용래(2004)의 연구에서 역기능적 신념검사 원판 척도의 요인구조로 3개의 1차 요인과 1개의 2차 요인으로 구성된 위계적 3요인 모형을 채택하였다. 이에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 척도의 각 요인들이 원판 척도와 동일하게 추출되는지, 각 문항들이 이들 요인에 적합한 요인부하를 나타내는지 검증함으로써 단축판 검사를 원판 검사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단축판과 원판의 측정 변인들을 문항묶음(item parcel)한 요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문항 묶음으로 정의된 소척도 간 상관계수를 표 9, 표 10에 제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각 문항 묶음한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9.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모형 검증을 위해 사용된 문항 묶음(변수 당 4개 문항 묶음)으로 정의된 소척도 간의 상관계수 및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N=231)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 NCSS1	2.25	0.82	1	.77**	.71**	.23**	.32**	.31**	.40**	.39**	.49**
2 NCSS2	2.19	0.83		1	.73**	.20**	.29**	.27**	.36**	.40**	.46**
3 NCSS3	2.01	0.88			1	.13*	.19**	.24**	.38**	.44**	.52**
4 EDOA1	3.89	0.92				1	.53**	.67**	.38**	.44**	.36**
5 EDOA2	3.82	1.01					1	.71**	.40**	.51**	.39**
6 EDOA3	3.39	0.89						1	.42**	.52**	.44**
7 NBOS1	3.05	0.83							1	.60**	.59**
8 NBOS2	2.56	0.75								1	.59**
9 NBOS3	2.48	0.84									1

** $p < 0.01$, * $p < 0.05$

표 10.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모형 검증을 위해 사용된 문항 묶음(변수 당 8개 문항 묶음)으로 정의된 소척도 간의 상관계수 및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N=231)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 NCSS1	2.21	0.89	1	.90**	.89**	.33**	.44**	.35**	.61**	.57**	.62**
2 NCSS2	2.59	1.05		1	.85**	.30**	.40**	.29**	.56**	.54**	.56**
3 NCSS3	2.28	0.89			1	.37**	.44**	.38**	.64**	.61**	.65**
4 EDOA1	4.08	1.06				1	.89**	.83**	.60**	.51**	.58**
5 EDOA2	4.05	1.08					1	.83**	.60**	.53**	.61**
6 EDOA3	3.89	1.01						1	.57**	.53**	.57**
7 NBOS1	2.65	0.84							1	.79**	.84**
8 NBOS2	2.64	0.89								1	.76**
9 NBOS3	2.86	0.85									1

** $p < 0.01$, * $p < 0.05$

표 11.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와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문항 묶음으로 정의된 소척도 간의 상관계수(N=231)

L_NCSS			L_EDOA			L_NBOS			S_NCSS			S_EDOA			S_NBOS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①	1	.90**	.89**	.33**	.44**	.35**	.61**	.57**	.62**	.67**	.73**	.63**	.15*	.23**	.24**	.32**	.39**	.40**
②		1	.85**	.30**	.40**	.29**	.56**	.54**	.56**	.70**	.76**	.69**	.18**	.21**	.24**	.30**	.39**	.41**
③			1	.37**	.44**	.38**	.64**	.61**	.65**	.66**	.77**	.70**	.22**	.29**	.31**	.38**	.46**	.48**
④				1	.89**	.85**	.60**	.51**	.58**	.20**	.28**	.18**	.53**	.73**	.67**	.37**	.51**	.35**
⑤					1	.83**	.60**	.53**	.61**	.27**	.33**	.22**	.48**	.70**	.64**	.37**	.52**	.35**
⑥						1	.57**	.53**	.57**	.26**	.30**	.20**	.64**	.64**	.65**	.40**	.54**	.41**
⑦							1	.79**	.84**	.51**	.49**	.50**	.39**	.46**	.47**	.61**	.69**	.62**
⑧								1	.76**	.49**	.46**	.48**	.39**	.34**	.39**	.50**	.55**	.67**
⑨									1	.47**	.46**	.45**	.34**	.40**	.46**	.56**	.65**	.56**
⑩										1	.77**	.71**	.23**	.32**	.31**	.40**	.39**	.49**
⑪											1	.73**	.20**	.29**	.27**	.36**	.40**	.46**
⑫												1	.13*	.19**	.24**	.38**	.44**	.52**
⑬													1	.53**	.67**	.38**	.44**	.36**
⑭														1	.71**	.40**	.51**	.39**
⑮															1	.42**	.52**	.44**
⑯																1	.60**	.59**
⑰																	1	.59**
⑱																		1

** $p < 0.01$, * $p < 0.05$

L_NCSS; 원판_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L_EDOA; 원판_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L_NBOS; 원판_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 S_NCSS; 단축판_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S_EDOA; 단축판_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S_NBOS; 단축판_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와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문항 묶음으로 정의된 소척도 간 상관관계수도 표 11에 제시하였다.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적합도 지수 비교를 위해 원판 검사의 확인적 요인분석도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로써 NNFI(Non-normed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그리고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NNFI와 CFI는 대략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 (Schumacker & Lomax, 1996), RMSEA의 경우 그 수치가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위

계적 3요인 모형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을 때, 원판과 단축판 모두 표준화 경로계수가 1보다 큰 값이 나왔다. 이는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오차분산이 음수를 나타내는 것을 찾아 매우 작은 값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통계적 의미에서 위배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실제의 표본 값을 왜곡함으로써 적합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다른 방법은 그 문제와 관련된 항목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항목의 수가 너무 감소되면 또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이학식, 임지훈, 2007). 본 연구에서는 음수 값을 나타내는 오차분산을 .005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판 역기능

표 12. 위계적 3요인모형에 대한 원판과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적합도 (N=231)

척도	χ^2	df	NNFI	CFI	RMSEA(90% CI)
원판	55.20	25	0.98	0.99	0.07(0.04, 0.09)
단축판	73.22	25	0.94	0.96	0.09(0.07, 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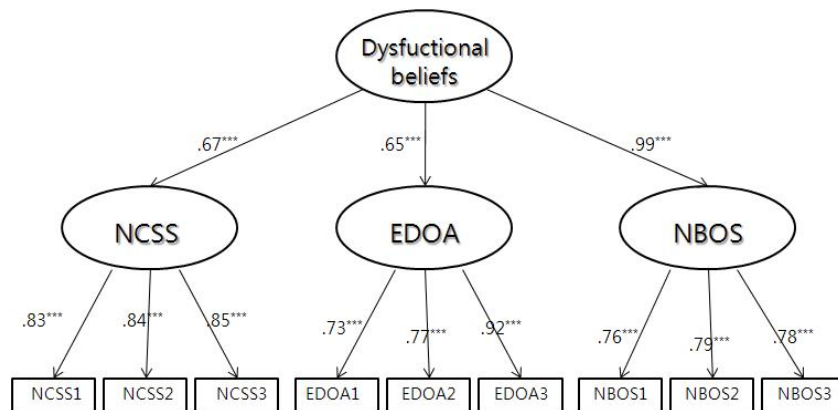


그림 1.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확인된 경로모형(표준화계수)

*** $p < 0.001$

적 신념검사의 위계적 3요인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NNFI 값이 0.98, CFI 값이 0.99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RMSEA 값은 0.07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인다.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척도의 적합도는 NNFI 값이 0.94, CFI 값이 0.96로 원판 척도에 비해 적합도가 약간 낮아졌으나, 그 값도 좋은 적합도 범위에 속한다. 단축판의 RMSEA 값도 0.09로 0.08보다는 크지만 양호한 적합도를 보인다. 또 단축판과 원판의 RMSEA의 90% 신뢰구간을 보면, 신뢰구간 간격이 좁아 추정된 RMSEA값의 오차가 적고 그 만큼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계적 3요인 모형의 모수 추정치에 대한 표준화 값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위계적 3요인 모형에서 각 1차 요인들과 세 가지 측정변인들 간의 표준화된 요인계수는 요인 1의 경우 .83-.85, 요인 2의 경우 .73-.92, 그리고 요인 3의 경우 .76-.79로 모든 추정치들이 높았다. 그리고 2차 요인과 세 가지 1차 요인들 간의 표준화된 요인계수는 .65-.99로 나왔다. 또, 위계적 3요인 모형에 대한 모든 계수 값이 α 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세 가지 1차 요인들 모두 전반적인 역기능적 신념이라는 2차 요인에 대한 타당한 지표임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의 주된 인지적인 내용으로 간주되는 역기능적 신념에 대한 단축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단축판은 원판 척도와 비교해 문항수가 절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실시 소요시간이 단축되어 사

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심리측정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 단축판 척도에 대한 심리측정학적인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각 하위 척도별로 내적합치도 계수, 반분신뢰도 및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세 가지 하위 척도 모두 내적합치도 및 시간적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둘째,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에 대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와 이론적으로 사회공포증과 관련이 높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단축판 검사의 하위 척도와 원판 검사의 하위 척도 간 상관이 높게 나왔으며, 사회공포증 관련 척도들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공포증과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Beck 우울척도와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하위요인별 점수와 Beck 우울척도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구성타당도가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에 대해서도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단축판 검사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공통요인분석 방법 중 단일주축분해 방법과 Harris-Kaiser의 Othoblique방식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용래와 원호택(1999)이 제안한 3요인 외에도 2요인 구조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3요인 구조의 경

우 한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요인 별 문항 묶음이 원판 검사 구성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2요인 구조의 경우는 요인 2와 요인 3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경향을 보이고, 요인 1이 하나의 요인으로 드러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를 원판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원판의 요인구조로 밝혀진 위계적 3요인모형에 대해 단축판과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자료를 적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원판과 단축판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다. 적합도 지수에 따라 원판의 적합도가 좀 더 좋게 나온 것도 있었지만 단축판의 적합도 자체도 양호한 수준이라 원판과 단축판에 의해 수집된 자료 모두 모형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모수 추정치에 대한 표준화 값을 보면, 모두 α 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1차 요인들과 세 가지 측정변인들 간의 표준화된 요인계수는 .73에서 .92까지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가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와 혼용하여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이는 본 검사가 사회공포증의 주된 인지적 내용으로 간주되는 역기능적 신념을 측정하는 검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단축판과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원판 역기능적 신념검사는 문항 수가 많아 다른 검사들과 함께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는 원판 검사의 절반 수준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어 시간적으로 경제적이다. 그래서 실제 임상 장면 및 연구 목적으로 다른 검사들과 함께 실시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단축판 검사의 요인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수를 줄여 단축판 검사를 구성하면 요인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본 검사를 통해 단축판 검사가 원판 검사와 같은 위계적 3요인 모형을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축판 검사의 각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이 원판 검사의 하위요인 별 문항 구성과 거의 동일하여 단축판 검사가 원판 검사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넷째, 사회공포증의 인지적 내용과 관련된 본 척도의 요인구조가 임상 표본이 아닌 일반 대학생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고, 사회공포증 수준이 임상적으로 유의한 정도가 아닐지라도 대학생들의 사회불안과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는 도구로도 사용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본 연구에서 단축판과 원판의 모형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동일인을 대상으로 2주간격을 두고 2회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때, 1차 설문에 단축판 척도를 실시하였고, 2차 설문에 원판 척도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과 2차 설문 사이에 2주 간격의 시간을 두었으나 단축판 척도가 원판의 것에서 문항 수만 줄어 들었고 문항 자체는 똑같다는 점에서 문항을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순서효과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1차 설문을 실시할 때 설문 참여자들 절반에게는 단축판 척도를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원판 척도를 먼저 실시하여 순서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둘째, 단축판 검사와 우울 척도도 실시 시간에 2주 간

격이 있어, 이 둘의 상관계수 값에는 2주 간격이라는 시간차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BDI와 함께 실시한 원판 척도의 7점 척도를 6점 척도로 재점수화하여 BDI와의 상관을 확인해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셋째, 표본수가 적었다. 이러한 표본 크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parceling을 하였지만 전국 대학생의 전형적 표본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 표본수도 적어 단축판 검사의 신뢰도를 뒷받침해주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집단에 국한된 것이므로, 대상 집단의 특수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특히 역기능적 신념검사는 사회공포 등의 임상적 문제를 설명해주는 목적에서 유용한 검사이므로 앞으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다섯째, 단축판 검사와 원판검사 점수간의 연계화를 통해서 두 척도에서 나온 점수간에 동등한 해석이 가능한 연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타당화 전략으로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중다특성 중다방법, 다수준 분석 등의 보다 진일보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연구의 위력저하를 가져왔다. 앞으로 보다 강력한 타당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병서, 조철호 (2005).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무역경영사.
 권석만 (1993). 대학상담장면에서의 인지치료의 활용. 치료적 단기상담모델로서의 인

지치료. 학생연구, 28, 61-79.
 권석만 (1994).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 심리과학, 3(1), 100-111.
 권석만 (1994a). 임상심리학의 최근 동향. 1994년도 한국 심리학회 동계 연수회 자료집(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 213-242.
 권석만 (1995a). 정신병리와 인지: 정서장애를 중심으로.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한국심리학회 편)(pp.49-95). 1995년도 한국 심리학회 동계 심리학 연구세미나 자료집.
 김남재 (2004). 한국판 사회공포증과 불안 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1011-1027.
 김세은 (2005). 발표불안집단과 사회불안 하위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소영 (2006). 사회공포증에 대한 과제집중훈련의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윤희 (2008). 인지행동치료가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의 사회불안과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정 (2000). 사회공포증. 서울: 학지사.
 김은정 (2000). 사회공포증상을 보이는 내담자. 대학생생활연구, 18, 37-73.
 김혜숙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문제 및 역기능적 신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은정 (2008). 성격장애 진단검사 타당도: 의존성과 회피성 성격장애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박선영 (2002).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구분 및 사

- 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한아 (2006).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재환 (2000). 한국인 사회공포증 척도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균, 원호택 (1991). 비합리적 사고와 귀인양식에 있어서 우울집단과 불안 집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69-285.
- 신민진 (2009).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주경 (2007).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기제: 행동억제기질, 가족 환경, 역기능적 신념, 불안통제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윤희, 안창일, 오강섭 (2005).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의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677-692.
- 유은승, 안창일, 박기환 (2007). 한국판 Liebowitz 사회불안척도(LSAS)의 요인구조 및 진단적 유용성-대학생 집단과 사회공포증환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251-270.
- 이경아, 신혜린, 유나현, 이기학 (2008). 간편 대학생활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9(2), 739-754
- 이민규, 이민수 (2002).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 척도(K-DAS)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273-286.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시형, 김형태, 이성희 (1987). 사회공포증의 유형별 임상고찰. 신경정신의학, 26, 517-524.
- 이시형, 신영철, 오강섭 (1994). 사회공포증에 관한 10년간의 임상연구. 신경정신의학, 33(2), 305-312.
- 이시형, 이성희, 김갑중 (1986). 사회공포증 집단치료: 치료경과 및 결과. 신경정신의학, 25, 618-627.
- 이시형, 이성희, 조소연 (1990). 사회공포증의 임상고찰(III)-자기취공포. 신경심리학회지, 29(6), 1381-1392.
- 이정균, 광영숙, 이희, 김용식, 한진희, 최진옥, 이영호 (1986). 한국 정신장애의 역학적 조사연구(I) - 도시 및 시골지역의 평생유병률 -. 서울의대 정신의학 부록, 11, 121-141.
- 이정윤, 최정훈 (1997). 사회공포증의 인지행동 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35-56.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이주영, 이정애, 오강섭 (2008). 한국판 사회적 걱정에 대한 질문지(K-ASC) 타당화연구: 대학생 및 사회공포증 환자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253-275.
- 이주화, 김아영 (2005).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개발. 교육심리학회지, 19(1), 311-325.
- 이지영, 권석만 (2005).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의 개발: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451-464.
- 이창욱 (1998). 사회공포증의 개념 및 임상양상. 대한정신약물학회지, 9(2), 3-8.
- 이현진 (2002). 아동정신병리. 서울: 시그마프

- 레스.
- 이학식, 임지훈 (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범문사
- 정승아, 오경자 (2004).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471-482.
- 조용래 (1999).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공포증상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모델 접근법을 사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7-36.
- 조용래 (2000).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자동적 사고 질문지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831-851.
- 조용래 (2003). 역기능적 신념과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가 사회공포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용래 (2004).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요인구조: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용. *인지행동치료*, 4(2), 61-71.
- 조용래 (2007). 발표불안에 대한 비디오 피드백의 효과: 중재변인과 매개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293-322.
- 조용래, 김은정 (2005). 가해염려를 동반한 사회공포증: 한국판 TK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97-411.
- 조용래, 김은정, 원호택 (1997)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II):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진술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33-249.
- 조용래, 원호택 (1997).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진술 검사 한국판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96 연차 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11-24.
- 조용래, 원호택 (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평가 III: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41-162.
- 최정훈, 이정운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1), 21-47.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강지현 (2004).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청소년을 위한 집단 인지행동치료 효과의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263-279.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홍무, 염태호, 신영우, 김교현, 윤도준, 정근재 (1986). Beck Depression Inventory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 정상집단을 중심으로(1) -. *신경정신의학* 25(3), 487-502.
- 현진원 (1992). '완벽주의'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홍세희,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의 구성: Rasch 평정척도 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865-880.
- Alden, L. E., Teschuk, M., & Tee, K. (1992). Public self-awareness and withdrawal from social interac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49-26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 Psychiatric Association.*
- Arnkoff, D. B., & Glass, C. R. (1989). Cognitive assessment in social anxiety and social phobia.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61-74.
- Beck, A. T., Brown, G., Steer, R. A., Eidelson, J. I., & Riskind, J. H. (1987). Differentiating anxiety and depression utilizing the Cognition Checklis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79-183.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136-162)*. Newbury Park, CA: Stage.
- Bruch, M. A., Mattia, J. I., Heimberg, R. J., & Holt, C. S. (1993). Cognitive specificity i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supporting evidence and qualifications due to affective confound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7, 1-21.
- Bryant, B. M., & Trower, P. E. (1974). Social difficulty in a student sampl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4, 13-21.
- Butler, G. (1985). Exposure as a treatment for social phobia : some instructive difficult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651-657.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 treatment. (pp69-73)*. New York: Guilford Press.
- Eliis, A.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Lyle Stuart.
- Emmelkamp, P. M. G. (1982). *Phobic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s: Therapy, research and practice*. NY : Plenum Press.
- ERIC J. Mash, Russell A. Barkey (2003). *Child Psychopat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Evidence of the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with a social phobia popul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211-222.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Glass, C. R., & Arnkoff, D. B. (1994). Validity issues in self-statement measures of social phobia and social anxi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2, 255-267.
- Glass, C. R., & Furlong, M. (1990).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affec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365-384.
- Glass, C. R., & Merluzzi, T. V., Biever, J. L., & Larsen, K. H. (1982).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statement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37-55.
- Greenberg, M. S., & Beck, A. T. (1989). Depression and anxiety: a test of th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9-13.
- Haaga, D. A. F., & Davison, G. C. (1993). An appraisal of rational-emotiv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215-220.
- Heimberg, R. G.(1989). Cognitive and behavioral treatments for social phobia: *A critical 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107-128.
- Heimberg, R. G. (1994). Cognitive assessment strategies and the measurement of outcome of treatment for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 and Therapy*, 32, 269-280.
- Hill, C. V., Oei, T. P. S., & Hill, M. A. (1989).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specificity and sensitivity of the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and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1, 293-311.
- Hollon, S. D., & Kriss, M. R. (1984). Cognitive factors in clinical research and practi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4, 35-76.
- Ingram, R. E., & Kendall, P. C. (1986). Cognitive clinical psychology: Implications of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In R. E. Ingram(Ed.),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es to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Jones, R. G. (1968). *A factorial measure of Ellis' irrational belief system with personality and adjustment correl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Technological College.
- Kassinove, H. (1986). Self-reported affect and core irrational thinking: A preliminary analysis. *Journal of Rational-Emotive Therapy*, 4, 119-130.
- Kessler, R. C., McGonable, K. A., Zhao, S., Nelson, C. B., Hughes, M., Eshelman, S., Wittchen, H. U., & Kendler, K. S.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 Laurent, J., & Stark, K. D. (1993). Testing the cognitiv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with anxious and depressed youngst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26-237.
- Leibowitz, M. R., Gorman, J. M., Fyer, A. J., & Klein, D. F. (1985). Social phobia: Review of a neglected anxiety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729-736.
- Lucas, R. A., & Telch, M. J. (1993). *Group versus individual treatment of social phobi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Atlanta, GA.
- Myers JK, Weissman MM, Tischler GL, Holzer CE, Leaf PJ, Orvaschel H, Anthony JC, Boyd JH, Burke JD, Kraner M, Stolzman R. (1984). Six month prevalence of psychiatric disorders in three communities: 1980-1982. *Arch Gen Psychiatry* 41: 959-967.
- Pilkonis, D. A., Feldman, M., Himmelhoch, J., & Cornes, C.(1980). Social anxiety and psychiatric diagnosi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 13-18.
- Scholing, H. A., & Emmelkamp, P. M. G. (1990). Social phobia: Nature and treatment. In H. Leitenberg(Ed.),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pp. 260-324). New York: Plenum Press.
- Schumacker, R. E., & Lomax, R. G. (1996).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mith, T. W. (1982). Irrational beliefs in the cause and treatment of emotional distress: A critical review of the rational-emotive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 505-522.
- Smith, T. W., & Allred, K. (1986). Rationality revisited: Assessment of the empirical support for the rational-emotive therapy.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5, 63-87.
- Smith, T. W., & Zurawski, R. M. (1983).

- Assessments of irrational beliefs: The question of discriminative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976-979.
- Sutton-Simon, K. (1981). Assessing belief systems: Concepts and strategies. In P. C. Kendall & S. D. Hollon (Eds.) *Assessment strategies for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pp. 59-84). New York: Academic Press.
- Weissman, A. N., & Beck, A. T. (1978). *Developmental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Behavioral Therapy, Chicago.
- Zurawski, R. M., & Smith, T. W. (1987) Assessing irrational beliefs and emotional distress: *Evidence and implications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24-227.
- 1차원고접수 : 2010. 07. 05.
수정원고접수 : 2010. 11. 08.
최종게재결정 : 2010. 12. 19.

The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Dysfunctional Beliefs Test with a Korean College Student Sample

Hye-jung Jang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A Short Version of the Dysfunctional Beliefs Test(SDBT) is a self-report inventory of 36 items with 6-point rating scale. In this study, to compare the short version of the DBT with a original version of the DB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was used to verify a configuration of three factor solution of the DBT in a sample of undergraduate students($N=231$). Results showed that model-fit indexes of short and original version of the DBT was appropriate. An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ata were analysed. The short version of the DBT was highly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split-half reliability, and test-retest reliability. And the short version of the DB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aladaptive thoughts, emotional and behavioral symptoms, and trait anxiety related to social phobia as well as a vulnerability to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ut not with depression inventory. In conclusion, the short version of the DBT appears to be a highly reliable, valid measure to assess dysfunctional beliefs of social phobia. Lastly,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Phobia, Cognitive evaluation, the Dysfunctional Beliefs Test, Validation

부 록

단속판 역기능적 신념검사 36문항의 상관관계(N=231)

번호 N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NCSS_2	1																																							
NCSS_3		.71**																																						
NCSS_7			.50**																																					
NCSS_12				.28**																																				
NCSS_15					.23**																																			
NCSS_16						.23**																																		
NCSS_18							.33**																																	
NCSS_19								.27**																																
NCSS_20									.53**																															
NCSS_22										.65**																														
NCSS_31											.32**																													
NCSS_36												.45**																												
EDDA_1													.03																											
EDDA_4														.08																										
EDDA_5															-.02																									
EDDA_6																.03																								
EDDA_8																	.14																							
EDDA_10																		.10																						

